

보도시점 2023. 5. 8.(월) 08:00 배포 2023. 5. 8.(월) 08:00

13개국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주요 인사 15명, K-컬처와 만난다

- 싱가포르 텐센트 시니어 디렉터, 영국 사우스뱅크센터 총괄부장 등 방한해 게임, 문화예술 업계와 교류, K-컬처 체험

13개국 공연, 미술, 방송, 게임 등 문화예술·콘텐츠 분야 주요 인사 15명이 한국을 방문해 국내 업계·주요 기관과 교류하고 K-컬처를 직접 체험한다.

해외문화홍보원[원장 김장호, 이하 해문홍(KOCIS)]은 K-컬처 해외 협력망을 확대하고 K-컬처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초청사업(K-Fellowship)을 운영하고 있다.

올해는 5월 7일(일)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13개국 주요 인사 15명이 한국을 찾는다. 초청 규모는 15명으로 작년보다 2명 늘었다. 특히 K-콘텐츠 수출 견인을 위해 순수 문화예술 분야 이외에 방송콘텐츠와 게임 분야 인사도 초청한다.

5월 7일(일)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립 예술위원회 밤방 프리하디(Bambang Prihadi) 위원장을 시작으로 ▲ 벨기에 왕립예술역사 박물관 그룹의 페르베르쉬트 브루노(Verbergt Bruno) 총괄 관장, ▲ 아르헨티나 콜론극장 텔레르만 호르헤 알베르토(Telerman Jorge Alberto) 극장장, ▲ 이집트 종합예술학교 이브라힘 히삼(Ibrahim Hisham) 부총장, ▲ 싱가포르 텐센트 리쑤고(Lih Shiun Goh) 시니어 디렉터, ▲ 영국 사우스뱅크센터 현대음악 프로그램 홀니스 아템(Holness Adem) 총괄부장 등이 차례로 한국을 방문한다.

주요 인사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,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예술기관·단체를

방문해 문화예술, 콘텐츠 교류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업계 관계자와의 면담, 국제방송영상마켓(BCWW), 부산국제영화제, 국제 게임 전시회(G-STAR) 등 분야별 주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. 김장 담그기 등 K-컬처를 직접 체험하는 일정도 마련했다. 아울러 초청 인사들이 고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현지 재외문화원과의 협업, 문화행사 기획, K-콘텐츠의 현지 진출 지원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지원할 예정이다.

해문홍 김장호 원장은 “초청 인사들과 국내 관련 산업·기관 관계자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이 대한민국의 문화매력국가 이미지를 확산하고, K-콘텐츠의 세계무대 도약을 위한 교두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	책임자	과장	김나나 (044-203-3322)
		담당자	사무관	박용경 (044-203-3328)

국민과 함께하는
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

대한민국
지정브리핑

